전법 일기

美디트로이트 선센터 순례서 불교적 실천 모범을 만나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미국 내 한국 사찰들을 순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순례기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 아침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하며, 현지 불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나눴다.

이번 순례는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첫 순례지는 디트로이트 선센터였다.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숭산 스님의 법맥을 이은 활선 스님이 창건한 곳으로, 현재 명주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미국인인 활선 스님은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전법에 힘쓰고 있다. 활선 스님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의 중심을 'Who Am I'라는 화두를 통해 스스로 참구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단순히 참선을 수행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불자들은 완전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농 농법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실제 선센터 건물 지붕에는 작은 텃밭을 조성하여 채소를 자급자족하며, 인근 농지를 빌려 100%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배달 및 우편 판매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수행과 환경 보호,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하나의 전법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이 불교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선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필자는 함께 울력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착용한 채,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시리얼 재료를 섞는 울력은 노동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둘러 앉은 학생들은 커다란 용기에 담긴 재료를 정성껏 섞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해 불법을 체득하는 과정임을 실감케 했다.

활선 스님과 명주 스님, 그리고 센터의 불자들은 모두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 속에서도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채식을 실천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며, 공동체와 자연을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을 밝히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깊이 깨닫게 됐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법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디트로이트 선센터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순례가 아닌, 불법(佛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귀중한 수행의 시간이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⑭ 음식과 인간 이해

오온 인식, 불교 바탕이자 명상법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견해를 기술로 접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인도대륙의 인간 이해는 음식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를 설명하는 식소성아(食所成我)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런 이해 방식의 장점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기에 관찰과 사유력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추상의 오류로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추상적 사고의 귀결로 브라만교 전통은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五藏說)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것이 오온설(五蘊說)이다. 태양족의 후예임을 자부하신 석존의 오온(五蘊, pañca-skandha)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색(色)은 모인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 위의 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모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모든 식(識)과 법(法)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觀色如聚沫 受如水上泡 想如春時燄 諸行如芭蕉 諸識法如幻)

–〈잡아함경〉 T2, 69a18–20

경전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색·수·상·행·식의 무더기들(蘊)로 이루어진 인간은 물방울, 거품, 아지랑이, 파초, 허깨비(沫泡燄芭幻)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실체가 없다. 그리하여 오온은 제법무아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인간 자신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귀납적 결론으로 향하는 태도는 현대 과학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인 오온을 세계와 우주로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한 무아설은 실증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에도 몸과 마음, 신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이원론에 입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교적 입장도 인간을 몸과 마음의 복합체로 보고자 한다. 신체적 부분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색법으로, 정신적 요소는 수상행식의 심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색법보다 심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작용인 심법이 번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번뇌를 지칭하는 취(取)를 보충하여 오취온(五取蘊)으로 설명한다.

인간본질에 대한 차제적 설명방식인 오장설이 논증을 거치며 지나친 추상의 경로를 밟았기에 아트만이 탄생한 것이다. 음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이해로부터 기소성아(氣所成我), 심소성아(心所成我), 지소성아(智所成我) 그리고 영소성아(靈所成我)의 설명이 완성된다. 이 이론은 브라만교는 물론 현대 힌두교의 인간 이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교는 실증적 경험에 대한 증명으로 몸과 마음의 현상과 법칙을 오온설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과 오온설 모두 거친 것(麁)으로부터 미세한 것(細)으로 진행하는 수추차제(隨麁次第)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성을 지향하여 오염(染)의 결과와 원인의 순서라는 수염차제(隨染次第)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즉시 자신의 몸과 직전에 섭취한 음식물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호흡과 우주의 기운과 느낌들을 관찰해보라. 이렇게 색·수·상·행·식을 하나씩 관찰하여 오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바탕이며 명상법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천명하며 출발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3월 15일 취임 900일을 맞아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빗줄기 속에서도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는 원력을 모아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조계종이 천 년 동안 쓰러져 있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를 시작한 지 어언 2년 하고도 반. 2022년 9월 출범한 37대 집행부의 첫 원력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불사에 투영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진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도 넘어진 천 년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 년 동안 국운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이라며 불자는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원력불사로 확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불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원력 불사는 스님은 물론 신도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에서 성지순례 발길이 이어지며 다라니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참금도 꾸준히 모연되고 있다. 마애부처님이 전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교 중흥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외형 불사를 넘어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다.

쓰러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운다는 건, 갈등으로 점철된 난국 앞에서 쓰러진 우리가 굳건한 의지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과도 같다.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불자들의 환희와 감동을 주는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가 정토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30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